우리나라고대사 揆園史話 ②

■ 一沙 權 正 孝

(지난호에 이어서)

이에 오랜 적들과 여러 나라가 연이어 망하고 북쪽으로 쫓겨가자 그 유리한 틈 을 타고 천하를 나누어 다스렸으며, 결국 에는 진시황의 치세에 이르러 오랜 책략 을 떨치며 천하로 말을 몰아 종주(宗周) 와 성주(成周)를 삼키고 제후들을 멸망시 키고는 육종(六縱)의 연합을 제압하여 천 하를 채찍질하게 되었다. 남으로 백월(百 越)의 땅에 군(郡)을 설치하고 북으로는 흉노를 쫓아내니, 오랑캐들은 감히 남쪽 으로 내려와 목축하려 하지 않았고 병사 는 감히 활을 당겨 보복하려 하지 못했다.

班固歎常爲天下之劇, 晦庵推富强之業, 易興以江南之地, 原野底平, 江.漢分瀉, 風 氣散漫, 天產豊饒. 於是民資川澤山林之 饒. 食魚稻果蛤之味. 食物常足. 不憂凍餓. 民生無艱. 優(遊)「游」自足. 則民皆. 生而 亡積聚, 信巫鬼而重淫祠, 是以人[皆], 輕 放散, 勇而不勁. 歷觀漢籍, 曾無一人, [民] (起)於南方而制天下者, 是皆地理風氣之, 所以[能]陶冶感薰. 而人之所不能如何者 也. 夫南方之濕熱, 北方[燥寒之](之燥寒), 太白.崑崙之廣, 江.河湖澤之渟流, 誰安得 以, 易而遷徙之哉! 余於天人之際, 固不敢 長說; 余於地人之際. (限) [恨] 其執定而不 能左右之, 夫天下不幸之, 莫大於失地利也,

반고(班固)는 천하가 항상 매몰차 짐을 한탄하더니, 회암(晦庵)이 부강의 기초가 되는 위업을 추진하여 장강 이남의 땅을 변화시키고 부흥시킴에, 낮고도 너른 들 판에 장강과 한수가 나누어 넘쳐흐르고 바람의 기운도 매섭지 않아 천연 산물이 풍부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백성들은 강 택과 산림의 풍요를 바탕으로 물고기와 벼며 나무와 풀의 열매와 함께 고둥과 조 개 등의 맛깔스러운 것을 먹었다. 음식과 물자가 항상 풍족하여 춥고 굶주림을 걱 정하지 않았기에 백성들의 삶은 어려움 없이 한가로이 만족해하였으나, 곧 백성 들이 모두 나태하게 인생을 즐기니 쌓아 두고 모아 둔 것은 모두 없어지고 무당과 도깨비만 믿으며 부정한 사당만을 중하 게 여겼다.

이로서 사람들은 모두 약빠르고 방자하 며 용감하나 굳세지는 못하였다. 한나라 사적에 남방에서 일어나 천하를 제패한 (한국인재개발원 회장·애국운동연합고문 옮김)



자가 일찍이 한 명 도 없음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땅의 이치와 바람 기운으로 인 해 능히 인재가 길 러지고 교화에 물

드는 까닭이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릇 남방의 습기와 무 더위, 북방의 건조와 추위, 태백과 곤륜의 거대함, 장강과 황하 및 호수와 못 등 물 줄기의 머무르고 흐름을 그 누가 어찌 바 꾸고 옮기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늘 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감히 길게 말하 지 못하고 또한 땅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 해 단정지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음은 한스러우나, 무릇 천하의 불행 가운데 지 리적인 이득을 잃어버리는 것 보다 더 큰

天下之物, 莫不具表裏 本末之異, 天下 之事, 莫不兼利害 得失之雜, 故觀物者, 不 可絞於表末而棄其(裡)[裏]本, 創事者, 不 可拘於利得而忘其害失也. 是以聖人明於 天之道, 而察於民之. 故隨時觀, 從便行宜, 而天下之事,始全利得而絶害失. 愚者膠 守古法. 而不知 通以致其牽滯, 而家國以 喪. 拙者弊[弊]然捨長取短. 自以爲察而反 致其殃,此,天下萬世之弊也. 夫應時順,明 天道而藉物性者, 惟聖者能之, 天下豈有 聖賢 萬世而無索者耶?

천하의 사물 가운데 표리(表裏)나 본말 (本末)의 두 모습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것 이 없으며, 천하의 일 가운데 이해나 득실 의 번거러움을 두루 겸비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한 까닭에 사물을 관찰하는 자 는 겉과 끝에 얽매여 그 속과 밑을 버리 지 말아야 하며, 일을 시작하는 자는 이득 에 얽매여 그 해악과 손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함에 성인은 하늘의 도리에 밝 음으로 해서 백성의 일을 살피게 된다. 그 러기에 시기에 따라 변화를 관찰하고 편 안함을 쫓아 마땅함을 행하니, 비로소 천 하의 일은 그 이득이 온전히 되고 해악과 손실은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옛 법에 집착하여 지킬 뿐 그 변화와 융통을 모르니, 이에 구애되 고 막히게 되기에 이르므로 집안과 나라

는 이로서 쇠망하게 된다. 옹졸한 자는 몸 과 마음을 기울여 힘쓰지만 장점은 버리 고 단점만 취하므로, 스스로 살핀다고 하 면서 도리어 그 재앙에 이르게 되니, 이 는 천하의 만대에 걸친 폐단이다. 무릇 때 의 변화에 순응하며 하늘의 도리에 밝고 사물의 본바탕에 의지하는 것은 오직 성 인만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천하에 어찌 성인의 어짐을 도거리하고서 그렇게 만세에 걸쳐 무궁무진할 수가 있겠는가?

昔者,太公始封,周公問[何以治齊.]太 公曰:[擧賢而尙功.] 周公曰:[後世必有篡 殺之臣.] 其後二十九世, 齊爲(强)[疆]臣 田和所滅, 周公始封, 太公問[何以治魯] 周公曰: [尊尊[親親而](而親親).] 太公曰: [後世寢弱矣.] 後魯, 自文公以後, 禄去公 室, 政在大夫, 陵夷微弱, 遂爲楚所滅. 夫太 公 周公者, 世之所稱聖者也, 立業垂憲未 嘗有差, [末流而] (而末流) 之弊猶然如此. 地殊其方, 人各厥族, 而互相對峙, 亘萬古, 争雌雄而不知其極者, 株守陳古之法, 拘而 不知 者,安能向世間而求其勝也哉! 是故 保其長而兼人之長者, 覇, 棄其長而用人之 長者, 弱, 棄其長而用人之弊者, 亡. 何以知 其然耶? 昔者. 秦.穆公問由余曰:「中國以 詩.書 法度爲政, 然尚時亂, 今戎夷無此, 何 以爲治.] 由余笑曰: [此, 中國之所以亂也. 戎夷則不然, 上含淳德以遇其下, 下懷忠信 以事其上, 一國之政循一身之治, 不知所以 治. 此真聖人之治也.] 夫上淳德而崇簡樸 者, 戎夷之所以爲强也. 用是而乘中國之 繁縟, 則勝; 用是而復學中國之繁縟, 則勞; 若舍是而專學中國之繁縟, 則亡, 此固然之

옛날에 태공이 처음 피봉될 때 주공이 [제나라를 어찌 다스릴 것인가]하고 물으 니 태공이 말하길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공덕을 소중히 여기겠다] 하는지라, 주공 이 이르기를 [후세에 반드시 임금을 죽이 는 신하가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그 29 세(世) 후에 제나라는 그 땅의 신하인 전 화(田和)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주공이 처음 피봉될 때 태공이 [노나라를 어찌 다스릴 것인가]하고 물으니 주공이 말하 길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고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하겠다] 하는지라, 태공 이 이르기를 [후세에는 침체되어 약해 질 것이다] 하였는데, 그 후에 노나라는 문 공(文公) 이후로 녹봉은 공후(公侯)의 집 에서 떠나고 정치는 대부(大夫)의 손에 들어가니. 점차 미약해져서 마침내 초나 라에 멸망하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다시는 황실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 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석은 생각일 뿐이다. 이 유준을 황제로 옹

고생은 안 해도 될 터인데 한다는 것이다. 우리말에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는 말이 있고, '논두렁 정기라도 타고나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있 게 하는 데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도 무시 못 한다는 경험이 이러한 말을

그렇 생각한다면 제일 좋기로는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 면 별안간에 누군가가 나를 황제로 시켜 준 다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나는 아무런 노력이나 능 력을 갖추지 아니하였는데 황제를 시켜주니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로또에 당첨된 것 보 다 더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남겨 놓았을 것이다.

자시도감 제1화

부모 탓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딴에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으면서 여기

저기 이력서를 넣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빈 메아리뿐이니 부쩍 배경이라도 좋으면 이런 일이 없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들 것이

다. 부모가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자식 뒷바라지할 힘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그런데 정말로 별안간에 13살짜리가 생각 지도 않게 황제가 된 일이 있었다. 위진 남 북조 시대 남조 송(宋, 劉宋이라고 함)의 유 준(劉準)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보다 앞 서 있었던 송의 황제는 그의 형 후폐제 유욱 (劉昱)이었다.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황제 에 올랐으나 도대체 황제 감은 아니었다.

어렸을 때에는 총명하였지만 기행(奇行) 을 일삼았다. 아침에 대나무 장대에 올라가 서 놀다가 밤이 되어서야 내려왔고, 황제가 되어서도 평복으로 하고 시장에 나가서 사 람들과 싸움하다가 욕을 먹기라도 하면 오 히려 기뻐하였고 하루에 한명이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날은 기분 좋지 않아했다. 그러니 정상은 아니었다.

이런 만행은 당시 군권을 갖고 있는 소도 성(蕭道成)까지 죽이려고 위협하자 드디어 소도성이 그를 내쫓고 그의 동생 유준을 황 제로 옹립한 것이다. 유준은 명제의 셋째로 태어났다가 그의 형이 기행을 하다가 쫓겨 나는 바람에 황제가 된 것이다. 겉으로 보기 에는 복 터진 것이다.

그러나 거저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는 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어서 막대한 돈 을 사회에 내 놓는 빌게이츠조차도 내 놓은 돈이 다시 그에게 돌 아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기부를 한 다니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

각설하고, 소도성

립한 것은 그를 징검다리로 하여 자기가 황 제가 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 는다. 황제 자리를 두고는 부자간 형제간에 도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판에 소도성이 유 준에게 황제자리를 공짜로 준 것일 리가 없 다. 다만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1 -

때가 되었다. 유준이 황제가 되어 2년쯤 되는 해에 드디어 소도성이 송을 대시하여 제(齊)왕조를 세울 시기가 된 것이다. 그동 안 소도성이 황제가 되는 것을 반대할 것 같 은 사람은 하나씩 제거 되었다. 그리고 드디 어 유준은 자기도 모르게 소도성에게 황제 의 자리를 선양한다는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황제자리를 선양하는 의식에 유준 이 나아가야 하지만 이에 이르니 죽을까 겁 이 나서 불교 법당을 숨었다. 나타나지 않으 면 유준의 목숨이 위험해 질 거라고 생각한 그의 생모인 태후가 불러서 밖으로 나온 그 는 첫 마디가 '나를 죽일 것인가?'였다. 비 록 안 죽일 것이라는 대답은 나왔지만 두렵 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독백처럼 외쳤 다. '바라건대 뒤에 태어날 몸은 세세토록 다시는 천왕(天王)의 집안에 태어나지 말지 어다.'이러한 말을 한 제왕은 역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명(明)나라의 마지 막 임금 숭정황제도 그 딸을 붙잡고 '네가 왜 내 딸로 태어났느냐?'고 눈물을 흘렸다.

모두 자기 힘을 들이지 않고 얻었던 사람 들이 맞은 비극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도 있다고 반론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유산 을 받고 그것을 지킬 만큼 노력한 것은 실상 을 보지 못한데서 오는 착각이다. 성공한 사 람이 제대로 자식에게 물러주기 위하여 자 식을 교육시킨 과정과 이를 잘 견뎌낸 아들 의 노력을 보지 못하고 한 생각이다.

사실 성공한 이들의 노력만큼 혹은 그보 다 더 노력하고 애써도 성공 못할 사람이 없 을 것인데, 공연히 부모 탓, 환경 탓 하는 사 람이라면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 지도 모른다. 세상에 어느 누군들 공짜로 얻 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3월23일 현재)

■ 총재단회비

△권영상(부총재) 100만원 100만원 △권세도(부총재) △권영익(부총재) 100만원 △권경웅(부총재) 50만원

소 계 350만원

20만원

20만원

1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중덕(시중공파종회장)

△권영해(영주 검교공파) 20만원

△권중덕(안동 호장공파)

△권영무(영주 복야공파)

△권경호(대구 부정공파)

20만원

20만원 △권정식(안동 대종원)

소 계 120만원

■ 대의원회비

△권용호(안동 호장공파) 10만원 △권태정(안동 부호장공파)

△권지섭(금천 복야공파) 10만원 △권영례(부산 대종원) 10만원

△권순악(고양 추밀공파) 10만원 △권덕상(대전 시중공파) 10만원 △권영진(의령 복야공파) 10만원

소 계 70만원

합계 540만원

임진왜란과 행주대첩 ③

안동권씨 기로회장 권 정 택 충장사 제전위원

(지난호에 이어서)

이광휘하의 많은 장졸이 전사하거나 모두 흩어졌으나 오직 권율만이 흩어짐 이 없이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광주로 퇴 각하여 뒷일을 계획하였다. 그 후 남원에 서 1천명의 군시를 모집하여 다시북진 금 산에서 전주로 들어오려는 고바야가와의 정예부대를 맞아 동북현감 황진과 함께 이치에서 싸웠다. 이 싸움에서 황진이 조 총탄을 맞아 사기가 저하되었으나 굴하 지 않고 군사들을 독려하여 왜군을 격퇴 시켜 호남을 보존하였다. 그해가을 梨峙 싸음의 공으로 일약 전라감사에 승진하

이해12월 전라감사 권율은 서울의 수복 을 위해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 진 길에 올라 직산에 이르러 잠시 머물다 가 제찰사 정철이 군량미 마련등에 어려 움이 있으니 돌아가 관내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잠시 주저하였으나 북상 하라는 행재소의 전갈을 받고 북진을 계 속하였다. 그러나 앞서 광교산에서 크게 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바로 북상 하는 것을 피하고 수원 독성산성에 들어 가 진지를 구축하였다. 대군이 그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왜군의 총사령 관 우키타는 후방의 연락이 단절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도산성에 주둔한 왜군을 풀어 삼진으로 만들고 오산 등 여러 곳에 진을 친 다음 서로 내왕하며 독성산성의 아군을 밖으로 유인 하려 하였다. 그러나 성책을 굳게 하여 시구전과 유격전을 전 개하면서 그들에게 타격을 가하자 몇 날 이 지난 다음 영책을 불사르고 도성으로 퇴각하였다. 적이 물러갈 때 정예기병 1 천을 풀어 적의 퇴로를 기습하여 많은 왜 군을 참수했다.

관군과 명나라 원군이 평양을 수복하고 남진을 속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명의 원 군과 호응하기위해 다시 서울 근교 서쪽 으로 옮기기로 하고 조방장을 보내어 적 당한 지역을 물색하라고 하였다. 이에 조 경은 양촌에서 한강을 건너 고지를 올라 오고 병력을 주둔시킬 만 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본진에 돌아와 주장인 권율에게 보고하였다. 권율은 서울주변인 아현진을 칠 것을 원했으나 막하장수들의 반대로 조경이 물색한 곳으로 결정하게 되었으 니 이곳이 곳 행주산성이다. 권율은 행주 산성에 조경을 시켜 목책을 설치하도록 하고 은밀하게 이곳으로 군사를 옮긴 뒤 휘하병력 가운데서 4천명을 뽑아 전라병 사선거이로 하여금 歟川(始興)에 주둔케 하고 서울의 왜군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이때 죽산에서 패한 소모사변이중도 정 병1천을 거느리고 양천에 주둔 행주산성 과 금천중간 위치에서 왜군을 견재토록 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의 대비하여 행주 산성의 배수진을 친 권율을 돕도록 하였

권율은 잔여 군사를 이끌고 조경등과 함께 행주산성에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 때 서산대사의 고제인 義중장 處英도 의 중병 1천 명을 이끌고 權慄을 따라 강을 건너니 이산성에 포진한 군사는 3천여 명 을 헤이릴 뿐 이었다. 그 후 권율 정예병 을 뽑아 서울에 보내는 등 전투태세를 갖 추자 왜장들은 梨峙와 禿城山城에서 치 욕적인 敗北를 경험한지라 일성에 침공 하여 권율의 관군을 몰살하여 위험을 배 재하자는 자세로 임하였다. 출정에 한 번 도 진두에 나서본 일이 없던 총대장 우 키타를 이시다(石田三成) 마시타(曾田長 盛) 오타니(大谷吉繼) 의 三奉行 등 본진 의 장수들까지 7개 대로 나누어 행주산성 으로 진군 하였는데 전 병력은 3만 명이 넘었다. 행주성안에 우리 관군이 소지한 궁질 도창 총간 외에 변이중이 만든 화차 권율의 지시로 만든 수차석포라는 특수 한 무기로 왜군의 침공에 대처할 수 있었 다. 또 성안에는 일시에 왜군이 몰려들 것 에 대비하여 성책을 내외에 이중으로 만 들고 土堤를 쌓아 조총탄환을 피할 수 있 게 하였으며, 병사에게 재가 들어있는 주 머니를 허리에 차게 하였다. 왜군이 침입 해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권율은 일장훈 시를 통해 이번 일전이 병사들의 생사의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운이 이 한판의 승부에 있다는 것을 주지 시켜 용기를 북 돋아 주었다.

선조 26년 (1593년 계사년) 2월 12일 오 전 6시경 에 왜군의 선봉 1백여 기가 나 타나더니 뒤이어 대군이 몰려왔다. 선봉 에 나선 것은 제1대장 고니시 이었다. 그 는 평양싸움에서 대패한 이후 碧蹄館附 近 만石嶺 싸움에도 참전하지 않고 있다 가 마침내 설욕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라 생각하고 가장 먼저 산성공략에 나섰

그러나 성안에서 한꺼번에 화차에서 포 를 쏘고 수차석포에서 돌을 뿜어내며 진 천설총간 등을 쏘아대고 강궁의 시위를 당기자 몰러들었던 적의 병마가 맞아 혼 비백산하니 고니시의 제1대는 궤멸상태 에 빠져 물러났다. 다음에 나서던 이시다 가 이끄는 구로다의 이끄는 제2대도 공격 에 실패했다. 다음은 제3대를 이끄는 구 로다 차례였다. 구로다 는 전년9월 연안 성 싸움에서 의병에게 대패한 경험이 있 어 장재위에 褸臺를 만들고 그 위에 총수 수십 명을 올려놓고 성안을 향해 조총만 쏘게 하고 병졸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 다. 이에 조방장 조경은 대포를 쏘아 이를 깨뜨리고 또 포전 끝에 깔 날 두개씩을 달아 쏘게 하니 맞는 자는 즉사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⑨

■ 김 영 헌 (광주북구청 문화관광과장)

전주성 수성, 전라도 보전

왜군, 전라도 점령을 노리다

조선 수도 서울을 점령한 왜군을 북상하 여 5월 8, 9일경 임진강에서 작전회의를 갖 고 조선 8도를 분할통치하기로 전략을 수정 했다. 이는 조선 전역을 명나라 침공의 보급 기지로 삼아 군량을 조달하고 부산에서 희 주 간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평안도는 제1번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 長, 함경도는 제2번대 가토 기요마사加藤淸 正. 황해도는 제3번대 구로다 나가마시黑田 長政, 충청도는 제5번대 후쿠시마 마사노리 福島正則가 담당하였고, 경상도는 제7번대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경기도는 제8번대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강원도는 제4 번대 모리 가쓰노부毛利勝信의 군대가 맡았 다. 그리도 전라도는 제6번대 고비야카와 다 카카게/早川隆景가 침공을 담당했다.

며칠 뒤 일본 나고야名古屋에 머물고 있 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5월 13일 이들 왜장 들에게 조선 8도를 각각 점령토록 하고, 조 달 군량을 각군에 하달했다. 이 중 전라도에 서 조달해야 할 군량으로 전체의 19%인 2백 26만 9천 석을 할당했다.

전라도 침공 임무를 부여받은 고바야카와 는 모리 테루모토 등과 같이 바다를 건너와 그 군사를 성주, 선상, 금산(김천) 등 여러 곳에 주둔케 한 다음 서울에 올라와 있었다. 고바야카와는 임진강 전투까지 참여한 뒤 전라도로 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5월 25일 임진강에서 다시 서울을 거쳐 남하하여 전 라도로 향했다. 그리고 충주를 경유하여 조 령을 넘어 6월 9일 선산에 도착했다.

이때 고바야카와가 거느린 병력은 총 1만 5천 7백 명으로, 자신이 1만 명, 다치바나 무 네시게立花宗茂가 2천 5백 명, 다카하시 나 오쓰구高橋直次가 8백 명, 쓰쿠시 히로카도 筑紫江門가 9백 명, 모리 히데카쓰毛利秀包 가 1천 5백 명을 인솔하고 있었다.

선산에 도착한 고바이카와는 모리 테루모 토와 만나 부대를 재정비한 뒤 김천에서 추 풍령을 넘어 충북으로 들어가 황간을 지나 영동, 양산, 순양을 거쳐 6월 22일, 23일경 무 주와 금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휘하의 안코쿠지 에케이 安国寺恵瓊는 도

요토미가 조선으로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진영 축조의 임무를 띠고 조선에 들어와 창 원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는 창원에서부터 전라감사라고 자칭하면서 전주로 향했다.

6월 22일 그가 이끄는 의병에 의해 그 진 로를 저지당하고 만다. 7월 초 그는 현풍지 역을 거쳐 거창을 공격했다. 거창은 육십령 고개를 거쳐 진안, 전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의병장 김면에 의해 또다 시 저지되고 말았다.

이때가지 안코쿠지는 경상우의병의 강력 한 저항에 밀려 고바야키와의 본진에 합류 하지 못하다가 성주 지방을 우회하여 전라 도 지례를 거쳐 무주, 금삼으로 들어왔다. 이 미 왜군 주력부대가 웅치를 공격하던 때라 7 월 8일경의 웅치전투에는 참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 관·의병의 방어태세

이때 관군인 전라도 방어사 곽영은 금 사에, 조방장 이유의李由義는 팔량치(八 良峙: 함양과 남원 경계)에, 이계정李繼 鄭이 육십령(六十嶺: 장수와 함양 경계) 에, 장의현張義賢이 부항(釜項: 김천과 지례 경계, 김천시 부항면)에, 김종례金宗 禮가 동을거지冬乙巨旨에 진을 치고 방 어하고 있었다. 『난중잡록』

(다음호에 계속)

別世

동아꿈나무에 30억 땅기부 권희방 씨 別世



"불우 학생을 기르는 보람된 일에 써 달라"며 동아꿈나무재단에 토지 2만 4000여 m²(약7400여 평·30억 원 상당)를 1986년 기탁한 권희방(향년 95세) 씨가 별세하여 선산에 안장했다.